

약점 넘고 성장하는 KIA 영건들



김기훈

올 시즌 14경기 등판 2승 3패
1회에 사사구 남발·실책뒤 실점 빈번
투구 패턴 바뀌 두산전 6이닝 2실점 호투



문경찬

40경기 1승 15세이브·방어율 1.55 '선전'
8회만 등판하면 '흔들'...블론세이브 3회
부족한 선발진 이닝에 과부하...문 "더 준비할 것"



KIA 타이거즈의 '젊은 마운드'가 1화와 8회를 주목한다.

올 시즌 KIA 마운드는 치열한 내부 경쟁 속에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선발진에서는 '막내' 김기훈, 볼펜에서는 '마무리' 문경찬이 눈길을 끈다.

앞으로도 선발과 볼펜의 축으로 역할을 해줘야 하는 두 사람은 올 시즌 실패도 경험하고 있다. 김기훈에게는 '1회' 문경찬에게는 '8회'가 키워드다. 김기훈은 올 시즌 세 차례 구원 등판 포함 14경기 나와 2승 3패, 평균자책점 5.55를 기록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묵직한 직구로 상대를 압도하고, 매 경기 경험을 쌓으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첫 시즌을 보내는 김기훈에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1회'다.

3월 28일 한화와의 선발 데뷔전에서는 1회를 삼자범퇴로 처리하는 등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여름 들어 김기훈의 1회가 험난해졌다. 6월 26일 키움전에서 1사에서 볼넷 3개를 연달아 내줬고, 7월 2일 NC전에서도 3개의 사사구를 남발했다. 7월 7일 LG전에서는 실책 뒤 홈런을 맞았다.

지난 7월 LG전에서도 1회에만 4실점 했다. 이 경기에서 김기훈은 행운의 승리는 챙겼지만 '1회' 고민을 이야기하며 투구 패턴 변화를 예고했다.

그리고 13일 두산을 상대로 김기훈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다. 1회 공 2개로 박건우를 우익수 플라이로 잡은 뒤 정수빈과 오재일을 범타로 처리했다. 김기훈은 97개의 공으로 6회까지 마운드를 지켰다.

6이닝 2실점에도 패전 투수가 됐지만 소독은 있었다.

김기훈은 14일 "(투구)패턴을 바꿨다. 연습하

고 준비한 게 좋은 결과로 나왔다. 첫 아웃카운트를 빨리 잡아서 수월하게 갔다. 부족한 게 많지만 내용이 나아진 것 같다. 처음부터 쉽게 쉽게 가니까 투구수도 수월하게 갔다. 다음 경기에는 투구수 관리에 더 집중하겠다"며 "나쁘지 않은 투구라고 생각했지만 (패전이 된) 그런 경기도 있고 실점 많이 해도 승리 투수가 된 경기도 있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경험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문경찬에게는 '8회'의 쓴 실패들이 있다. 올 시즌 문경찬은 13일까지 40경기 나와 1.55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15세이브를 기록했다. 모든 경기를 완벽하게 책임진 것은 아니다. 3차례 블론세이브와 함께 2패도 남았다.

문경찬이 흔들렸던 경기의 공통점은 '8회'다. 문경찬은 7월 7일 LG전에서 9-7로 앞선 8회 2사 만루에서 나와 정주현에게 싹쓸이 2루타를 맞았다. 시즌 첫 블론세이브였다. 9회는 삼자범퇴였지만 경기는 9-10패로 끝났다. 이후 문경찬은 7월

9일 삼성전, 8월 11일 삼성전에서도 8회에 일찍 나섰다가 패전 투수가 됐다.

박종식 감독대행은 "조기에 나와 블론세이브가 있었다. 그런 타이밍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볼펜 운영에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마무리가 9회가 아닌 8회 등판할 수도 있지만 부족한 선발진의 이닝 탓에 볼펜진의 이닝이 늘어 나고 있는 부분은 KIA의 고민이다. 결과가 좋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경찬은 물론 팀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8회'다.

문경찬은 "이닝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아직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결과는 내 책임이다"며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상황에서 나가더라도 0점대 평균자책점으로 막을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포르투, UCL 본선 좌절

9년만에 ... 아약스는 PO행

포르투갈 '축구 강호' 포르투FC가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차 예선에서 탈락, 9년 만에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포르투는 14일(한국시간) 포르투갈 포르투의 드라강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라스노다르(러시아)와 UEFA 챔피언스리그 3차 예선 2차전 홈 경기에서 2-3으로 패했다.

8일 1차전 원정에서 1-0으로 이겼던 포르투는 1, 2차전 합계 3-3을 기록했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에 밀려 탈락했다.

2003-2004 UEFA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인 포르투가 본선 무대에도 오르지 못한 것은 2010-2011 시즌 이후 처음이다.

당시 포르투는 2009-2010 시즌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3위에 그쳐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3차 예선 1차전 원정 승리로 2차전 홈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본선 진출권을 따낼 수 있었던 포르투는 전반 3분 만에 토니 빌레나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힘겹게 출발했다.

포르투는 전반 12분과 전반 34분에 잇달아 마고메드 사피 솔레이마노프에게 추가골과 결승골을 허용하며 끌려갔다.

전반을 0-3으로 뒤진 포르투는 후반 12분 제루이스의 헤딩골과 후반 32분 루이스 디아스의 득점으로 따라붙었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지 못하고 2-3으로 패했다.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2차 예선부터 시작해 4강까지 진출했던 '네덜란드 강호' 아약스 암스테르담은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리버풀-첼시 UEFA 슈퍼컵

주부심 사상 첫 여성 배정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버풀과 첼시가 맞붙는 2019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의 주·부심이 사상 최초로 모두 여성으로 꾸러졌다.

영국 BBC는 "이번 시즌 UEFA 슈퍼컵 경기 주심과 부심에 여성 심판이 배정됐다"며 "메이저 남성 유럽 대항전에서 주·부심이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14일(한국시간) 전했다.

UEFA 슈퍼컵은 전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리버풀)과 UEFA 유로파리그 우승팀(첼시)이 맞붙는 경기다.

경기 주심에는 프랑스 국적의 스테파니 프라파트가 배정됐다.

올해 35살인 그는 지난 4월 이후 프랑스 프로 축구 리그와 경기에서 심판을 보았다.

경기 부심은 마누엘라 니콜로시(이탈리아)와 미셸 오블(아일랜드)이 맡는다.

프라파트를 비롯한 세 심판은 7월 국제축구연맹(IFIFA) 프랑스 여자 월드컵에서도 심판복을 입고 그라운드에 섰다.

대기심에는 남성 심판인 쿠니트 카키르(터키)가 배정됐다.

현재 잉글랜드에는 1천500여명의 여성 심판들이 활동하고 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2021년까지 이 수를 두배로 늘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FC '해결사' 펠리페

K리그2 23R '베스트 11'

광주FC의 '해결사' 펠리페가 23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4일 K리그2 23라운드 5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펠리페는 부천 원정에서 전반 20분 코너킥 상황에서 두현석이 띄운 공을 받아 머리로 골을 넣었다.

이 경기의 선취골이자 펠리페의 시즌 16번째 골. 펠리페는 이 골로 고무열(아산·12득점)을 4골 차로 따돌리며 득점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이날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나면서 1위 광주와 2위 부산 아이파크와의 승점은 5점 차로 줄어들었다.

한편 광주는 17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부산을 상대로 승격을 위한 사실상의 '결승전' 무대를 갖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특

▲최고로 던져야죠 = 13일 패배가 아쉬운 하준영이다. KIA는 지난 13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2-5로 졌다.

고졸 투수 김기훈이 6이닝 2실점으로 선전해줬지만 타선의 침묵으로 0-2에서 7회가 시작됐다. 고졸 2년 차 하준영이 김기훈의 뒤를 이어 마운드에 올랐지만 선두타자 최주환에게 홈런을 허용했다.

하준영은 송구 실책까지 기록하며 2실점을 했다. 경기는 2-5 KIA의 패. 하준영은 14일 "다시 승부를 하게 된다면 최고로 던져야죠"라며 전날 결과를 아쉬워했다.

하지만 실책 속에 크는 어린 선수다. 그의 옆에는 리그 최고의 좌완 양현종도 있다. 이날 훈련이

팜범벅 한승택 "수영하다 왔어요"

끝난 뒤 하준영은 양현종과 나란히 덕아웃으로 들어왔다. 양현종은 내내 하준영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줬다.

하준영은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다. 볼펜 피칭 등 등판을 준비하되, 투구수를 최소화하면서 대비하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설명했다.

▲수영하다 왔어요 = 찜통 더위가 누구보다 싫은 한승택이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선수들은 훈련 시간에 땀과 씨름을 하고 있다. 한승택은 유독 땀이 많다. 말 그대로 비오듯 땀을 흘리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14일 한승택이 훈련을 끝내고 덕아웃으로 들어오자 동료들은 "혼자 훈련을 다 했냐"면서 우스개 소리를 했다. 한승택은 "수영하다 왔어요"라

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하나면 나와요 = 서울 장충고를 졸업한 박찬호의 고향은 대구다. 대구에서 태어나 다섯 살때까지 살았던 박찬호는 지난 주말 삼성과의 경기를 위해 고향 나들이를 다녀왔다.

박찬호는 "전직들이 대구에 살고 있다"며 "경상도 사투리는 안 쓰는데 하나면 가끔 나온다"고 웃었다. 익숙한 곳이지만 고향에서의 성적은 좋지 못하다. "올 시즌 삼성과 키움에 약하다"고 말한 박찬호는 대구에서 4경기 나와 2개의 안타 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올 시즌 삼성전 타율은 0.200. 박찬호는 키움전에서도 0.125의 타율에 그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준표·이우성 키스코 '이달의 감독상'

KIA타이거즈 투수 박준표와 외야수 이우성이 구단 후원업체인 Kysco(키스코)가 시상하는 7월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다.

박준표는 7월 중 9경기에서 중간 계투로 등판해 11.2 이닝 평균자책점 '0.00'으로 1승 2홀드를 거뒀다.

특히 묵직한 직구와 날카로운 변화구로 상대 타자들과 정면 승부를 펼치며 5개의 탈삼진도 뽑아내는 등 핵심 볼펜 요원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6일 이명기와의 트레이드로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이우성은 7월 13경기 나와 23타수 6안타 7타점 4득점 타율 0.261을 기록했다.

한편 '이달의 감독상'은 지난 2015시즌부터 시상하고 있으며, 감독이 직접 매달 팀을 위해 희생하며 묵묵하게 공헌한 선수(투수·야수 각 1명)를 선정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